

날짜: 5786 년, 9 월 5 일 (2025 년 11 월 25 일)

토라 문: 나아가다

주제: 네 가지 죄

창세기 28 장 20-21 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내게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엘로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서원에서 야곱은 여러 영역에 걸쳐 엘로힘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 요청은 다양한 죄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각 죄가 야곱의 말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암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습니다.

랍비 아바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בדרך, 바데레크) 나를 지키시며” — 이는 중상(中傷)의 죄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미드라시는 야곱과 같은 의로운 인물이 노골적인 중상을 범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비방에서 떨어지는 티끌’ (아박 라손 하라)*이라고 불리는 보다 미묘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죄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바 바트라 탈무드 165a 는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9 장 2 절에는 *‘그들이 혀를 당기며, 그들의 활은 거짓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게 먹을 떡을 주시며” — 이는 음행의 죄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야곱이 음행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없으나, 이 구절은 부정한 관계와 연관된 부적절한 행위들로서, 예를 들면 무관한 여성을 응시하는 행위, 정도를 걷지 않은 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의 책임등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간구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39 장 6 절에는 *‘그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말기고, 오직 그가 먹는 떡 외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먹는 떡”은 결혼 한 부부의 사이를 뜻하는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떡을 먹게 하소서”라는 야곱의 간구는 정결한 결혼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주변의 악한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길로써 이해되는 것입니다.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 이는 살인의 죄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평안히”라는 표현은 무고함과 피를 흘리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미드라시 주석인 맛노트 케후나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시편 120 편 7 절—“나는 평화를 원하나, 그들은 전쟁을 일삼는다”—에서 보듯이 살인의 반의어로 사용된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우려했던 것은 실제로 피를 흘리는 살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타인을 부끄럽게 하여 한 얼굴의 핏기가 가시게 하며 피의 흐름을 백지처럼 만드는 것인데 이를 현인들은 살인과 동등하게 간주되는 행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엘로힘이 되실 것입니다” — 이는 우상숭배의 죄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며, 다른 신들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와 유사하거나 결과적으로 여호와 전능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다른 길로 이탈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바 바트라

10a 에서 현인들은 자선을 행하는 데에서 눈을 달리 돌리는 것조차도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라고 가르칩니다.

야곱이 위에 간구한 네 가지 죄, 중상모략, 음행, 살인, 우상숭배는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네가지 죄 뒤편 토라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들에 해당합니다. 후자의 세 가지, 즉 음행, 살인, 우상숭배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범해서는 안 되는 '3 대 중죄'"로 분류되며(산헤드린 74a), 랍비들은 (아라킨 15b) 이 세 가지를 중죄들과 확실히 동급이라고 간주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야곱이 간구 올려드린 이 죄들을 범하게 된다는 확률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의 부모를 두셨고 의의 언약의 한 큰 세대의 유업자로서 홀로 맨몸으로 유배의 길에 오르면서, 그가 마주 칠수 있을만한 영적 위협들이 그를 간접적이거나 아주 지극히 작은 형태의 죄로라도 끌어 가려 할 수 있음을 아브라함 이즈학의 공의의 도를 배우시고 걸으셨던 야곱께서는 염려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우려는 이후 실제 사건들을 통해 현실화 되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 네 가지 죄가 다양한 형태로 야곱의 가족 내에서 결국 드러났다고 전합니다. 창세기 35 장 2 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라"*는 구절은 우상숭배의 흔적이 그의 가족에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음행은 창세기 34 장에서 세겜이 디나를 납치하고 욕보인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이 음행은 곧 살인으로 이어졌는데, 디나의 오빠들이 쉘렘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상의 예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비방한 말을 그가 듣게 된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바이크라 라바에 따르면, 야곱이 간구 올렸었음에도 이러한 죄들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이유는 그가 서원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서원을 맺었던 자리에서 즉시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라헬의 죽음, 디나의 납치, 에서의 위협, 천사와의 싸움에서의 골반뼈의 부상 등이 그 예들입니다. 미드라시는 이러한 서원의 지연이 중대한 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서원을 하며 이 특정한 죄들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러한 자각과 염려에도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엘로힘께 올려드렸던 약속을 22 년이나 미루었으며, 그 결과 여호와 엘로힘께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너는 네 서원을 잊었도다."

에이츠 요세프는 바이크라 라바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사람을 벌하시기 위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그 스스로의 불의의 죄로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보호막(계명들)을 거두시게 되시며(경홀이 여기서 범하기예), 따라오는 그 결과가공정의 길을 아는 자조차도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허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1:13-27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아도나이 여호슈아 마쉬아흐로 말미암아 엘로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여호와] 엘로힘의 토라/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세속인]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롬 7:24-25